

# 영유아기 부정적 정서성의 발달궤적: 가정폭력노출 및 아동기 신경증 성향과의 관계

- 이승은 (연세대학교 아동·가족학과/인간생애와 혁신적 디자인 융합전공 박사과정)
- 송주현 (연세대학교 아동·가족학과/인간생애와 혁신적 디자인 융합전공 조교수)

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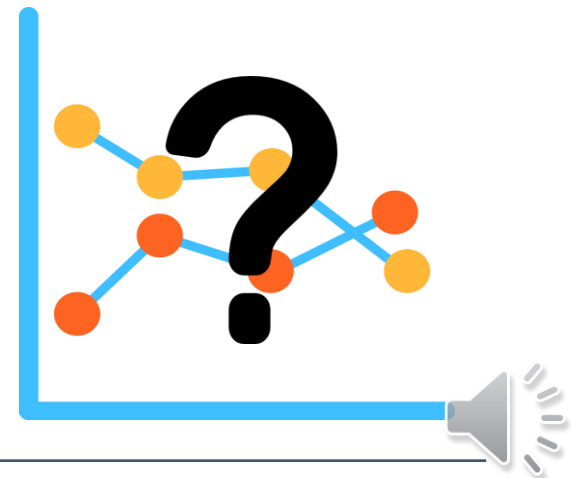


## 부정적 정서성이란?

- 유아가 스트레스 상황에서 보이는 분노, 슬픔, 짜증 등 쉽게 달래지지 않는 정서.
- 추후 문제행동과 같은 부정적 적응을 예측(Lim & Lee, 2017, Rothbart & Bates, 2006) -> 자기통제력 발달과 더불어 점차 조절되어야 할 기질적 특성(Eisenberg et al, 2009).

## 부정적 정서성의 발달궤적에 대한 다양한 의견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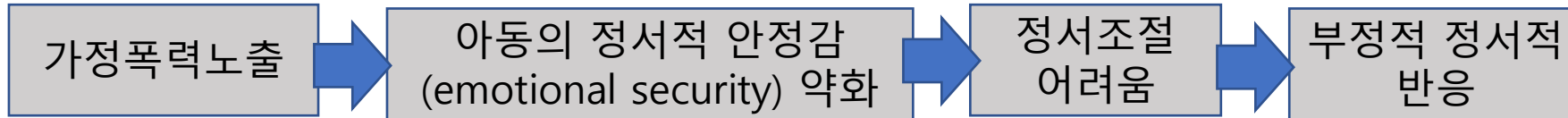
- 증가 또는 감소와 관련된 다양한 결과들이 존재 (장혜인, 2015; 최정희, 신나리, 2018)
- 부정적 정서성이 유전적 속성만을 지닌 것이 아니라 환경적 위험요인과의 상호작용을 통해 복잡한 발달과정을 거치기도 함 (Bridgett et al., 2009).
- 따라서 개인차를 반영한 인간중심접근 방법(예: 성장혼합모형)을 통해 부정적 정서성 발달에서 동질적 특성을 보이는 잠재집단을 분류하여 각 하위잠재집단의 특성을 고려해야 함.



# 연구목적

## 부정적 정서성과 가정폭력노출 (기질과 환경)

- 기질은 환경과의 상호작용을 통해 그 발현 과정이 달라질 수 있음(Shiner et al., 2012)
- Emotional Security Theory(EST; Davies & Cummings, 1994)



## 부정적 정서성과 신경증(기질과 성격)

- 부정적 정서성은 신경증의 출발점으로 알려져 있음. Big5 성격요인의 하나인 신경증은 성인의 다양한 부적응 관련됨(예: 우울, 낮은 주관적 안녕감, 스트레스 등)



기질과 성격 사이에는 차이점 보다 공통점이 더 많음(Caspi et al., 2005)

부정적 정서와 신경증이 **일생동안 평균수준의 안정적인 변화**를 보임(Shiner, 2018)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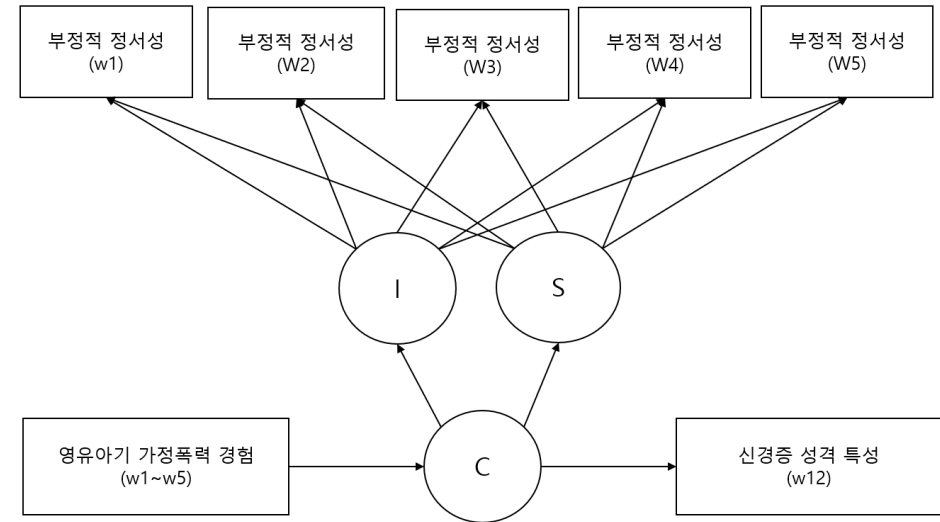


생애초기 부정적 정서성과 아동기 신경증과의 관계를 확인해 볼 필요가 있음



# 연구문제

따라서 본 연구는 영유아기 부정적 정서성의 발달 양상에 따른 잠재집단으로 유형화하고, 이러한 영유아기 부정적 정서성 유형과 가정폭력노출과의 연관성, 그리고 아동기에 신경증 성향과의 연관성을 확인하고자 한다.



- 1) 영유아기 부정적 정서성의 종단적 변화 양상에 대한 잠재계층 유형은 어떠한가?
- 2) 영유아기 부정적 정서성의 잠재계층 유형과 가정폭력노출 간의 관계는 어떠한가?
- 3) 영유아기 부정적 정서성의 변화 유형에 따라 아동기의 신경증 성향에 유의한 차이가 있는가?



# 연구방법

[연구대상] 한국아동패널 1차에서 5차년도(만 0세-4세) 와 12차년도(초5)에서 2,150명의 자료를 사용

## [연구도구]

- **부정적 정서성:** 1차~5차년도에 어머니가 응답한 EAS(Emotionality, Activity and Sociability) 기질척도에서 '정서성' 기질에 해당하는 5문항을 사용함(예: 우리 아이는 쉽게 기분이 나빠진다). 1점('전혀 그렇지 않다')~ 5점('매우 그렇다'). 5문항 평균값을 활용함.
- **가정폭력노출:** '가족생활사건 변화' 척도에서 '가정폭력 경험' 대한 어머니의 응답을 '경험함'은 '1'로, '경험하지 않음'은 '0'으로 측정함. 1차에서 5차까지의 응답을 합산함.
- **신경증 성향:** 12차년도에 아동이 보고한 NEO 성격검사의 신경증 하위요인 48문항의 T점수를 사용함. 1점(전혀 아니다)~ 5점(매우 그렇다)의 5점 리커르트 척도.



# 연구방법

## [분석방법]

- 성장혼합모형 분석을 통해 영유아기 발달단계의 경과에 따른 부정적 정서성의 변화궤적을 확인하여 잠재 하위집단을 도출함
- 3단계 접근법(Vermunt, 2010)을 통해 영유아기 가정폭력노출이 잠재집단 유형 구분과 연관되어 있는지, 잠재집단 유형별로 아동기 신경증 성향에 차이가 있는지 검증함
- SPSS 26.0과 Mplus 8.0 활용
- 결측치는 완전정보최대우도법(full information maximum likelihood: FIML)을 통해 처리함.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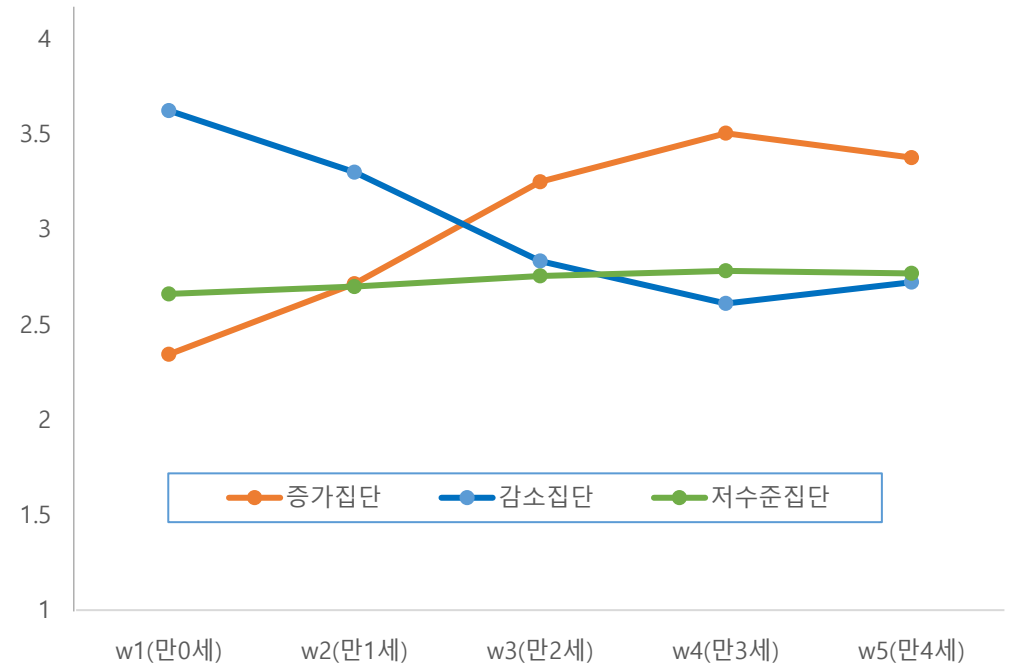


# 연구결과1)

- 첫째, 만0세(w1)에서 만4세(w5)까지의 발달단계를 이행하는 동안 부정적 정서성의 발달궤적은 3개의 잠재 집단으로 구분되었고, 이를 '증가집단(11.4%)', '감소집단(7.6%)', '저수준집단(81.0%)'으로 명명하였다.

표 1. 잠재집단 분류 기준

Number of class	AIC	BIC	aBIC	Entropy	BLRT	Group Ratio(%)			
						1	2	3	4
1	14964.148	15037.9	14996.597			100			
2	14920.731	15011.503	14960.669	0.740	.00	90.4	9.6		
3	14904.585	15012.376	14952.011	0.688	.00	11.4	7.6	81	
4	14893.979	15018.79	14948.893	0.693	.00	12.2	5.3	4.8	77.7



# 연구결과2)

- 둘째, 영유아기 가정폭력노출은 부정적 정서성 잠재집단과 유의한 관련성을 가지는 것으로 나타나, 영유아기에 가정폭력노출 경험이 심할수록 '저수준집단'이나 '감소집단'보다 '증가집단'에 속할 가능성이 더 큰 것으로 나타났다.

표 2. 잠재집단 분류와 가정폭력노출과의 관계

Reference group Comparison group	저수준집단 증가집단		저수준집단 감소집단		감소집단 증가집단	
	계수	표준오차	계수	표준오차	계수	표준오차
	가정폭력노출	1.764***	0.503	0.292	0.759	1.472*





# 연구결과3)

- 셋째, 영유아기 부정적 정서성의 잠재집단과 아동기 신경증 성향 간의 관련성을 살펴본 결과, '저수준집단'과 '감소집단'보다 '증가집단'의 신경증 점수가 높았다.

표 3. 잠재집단 유형화에 따른 아동기 신경증 차이 검증

	아동기 신경증			
	평균	표준오차	$\chi^2$	$p$
증가집단	50.34	0.95		
감소집단	47.04	1.41		
저수준집단	47.47	0.33		
증가집단 vs. 감소집단			3.952*	0.047
증가집단 vs. 저수준집단			6.520**	0.011
감소집단 vs. 저수준집단			0.080	0.777



# / 논의 및 결론

## [연구 의의]

- 본 연구는 변수-중심 접근(variable-centered)이 아닌 인간-중심(person-centered) 접근방식인 성장혼합모형분석을 이용하여 영유아기 부정적 정서성의 발달에서 서로 다른 성장궤적을 보이는 세 가지 하위 잠재집단을 확인하였으며, 각 잠재집단과 가정폭력노출 및 아동기 신경증 성향과의 관계를 규명하였음.
- 이를 통해 영유아가 가정 내 위험요인을 경험하게 되는 경우 정서적 부적응이 심화될 수 있으며, 이러한 부적응이 아동기까지 종단적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근거를 제시함으로써 정서발달에 대한 조기중재의 필요성을 시사하였음.

## [연구 한계점 및 제언]

- 가정폭력노출 이외에도 영유아의 부정적 정서성 발달에 영향을 미치는 다양한 가족사회환경(결혼의 질, 가족구조, 사회적 지지 등) 및 아동기 역경 요소, 그리고 그에 따른 부모의 양육행동 변화 등을 포함한 다각적 탐색을 통해 더욱 구체적인 개입의 방향을 모색할 것을 제안함.



# 참고문헌

- Bridgett, D. J., Gartstein, M. A., Putnam, S. P., McKay, T., Iddins, E., Robertson, C., ... & Rittmueller, A. (2009). Maternal and contextual influences and the effect of temperament development during infancy on parenting in toddlerhood. *Infant Behavior and Development*, 32(1), 103-116.
- Davies, P. T., & Cummings, E. M. (1994). Marital conflict and child adjustment: an emotional security hypothesis. *Psychological bulletin*, 116(3), 387.
- Eisenberg, N., Valiente, C., Spinrad, T. L., Cumberland, A., Liew, J., Reiser, M., ... & Losoya, S. H. (2009). Longitudinal relations of children's effortful control, impulsivity, and negative emotionality to their externalizing, internalizing, and co-occurring behavior problems. *Developmental psychology*, 45(4), 988.
- De Pauw, S.S.W., Mervielde, I. Temperament, Personality and Developmental Psychopathology: A Review Based on the Conceptual Dimensions Underlying Childhood Traits. *Child Psychiatry Hum Dev* 41, 313–329 (2010).
- Lim, J. Y., & Lee, Y. J. (2017). The Influence of Maternal Emotional Expression on Preschoolers' Behavior Problems: Dual Mediating Effects of Preschoolers' Emotional Temperament and Emotion Regulation. *Korean Journal of Child Studies*, 38(2), 51-66.
- Rothbart, M. K., & Bates, J. E. (2006). Temperament. In N. Eisenberg, W. Damon, & R. M. Lerner (Eds.), *Handbook of child psychology: Social, emotional, and personality development* (pp. 99–166). John Wiley & Sons, Inc.
- Shiner, R. L. (2018). Negative Emotionality and Neuroticism from Childhood through Adulthood. *Handbook of personality development*, 137.
- Shiner, R. L., Buss, K. A., McClowry, S. G., Putnam, S. P., Saudino, K. J., & Zentner, M. (2012). What is temperament now? Assessing progress in temperament research on the Twenty-Fifth Anniversary of Goldsmith et al.(). *Child Development Perspectives*, 6(4), 436-444.
- 장혜인. (2015). 아동의 부정적 정서성과 어머니의 우울간의 종단적 상호관계: 교류모형적 접근. *한국심리학회지: 발달*, 28(2), 19-39.
- 최정희, & 신나리. (2018). 영아기의 부정적 정서성과 어머니의 온정적 양육행동이 유아기의 외현화 문제행동에 미치는 영향. *인간발달연구*, 25, 51-71.

감사합니다